

“정확한 공연 정보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공연법 개정...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정보 전송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공연장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전송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이 같은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24일에 공포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연법’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후래의 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한상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이번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한 정확한 공연 정보 제공과 함께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근거 마련 등 법률적 미비 사항이 개선된다. 폐업신고 조문을 신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공연장 영업을 폐업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이와 관련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법상 미비점이 있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공연장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말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아 공연장의 실제 운영 사실과 등록 공연장 목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이번 ‘공연법’ 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소규모 공연장 맞춤형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 공연관계자 등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시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의 시범공연.

다양한 공연 펼쳐지는 태권도원으로!

가천대·계명대학교 등 8개 시범단 초청 공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1월과 2월, 전국 유명 시범단을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으로 초청해 태권도 시범공연을 가진다.

이번 초청 시범공연은 세한대·한양대·가천대·백석대·신성대·계명대·경동대학교 시범단 등이 참가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태권도원 방문객들은 시범공연 관람 후에 태권도와 라틴음악을 접목한 태권체조 프로그램인 ‘태권 Clap’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재단은 2019년도 ‘태권도원 상설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인 1월과 2월에 매 주말 초청 시범공연을 진행하고 3월부터는 주중·주말 상설 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 박노신 사업본부장은 “태권도원은 ‘2019~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가족 모두가 즐겨워하는 고난도의 태권도 시범공연을 비롯해 국립태권도박물관, 전망대와 모노레일, 다양한 트래킹 코스 등 태권도원에는 사계절 모두 볼거리·즐길 거리가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계판5분展’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계판5분展 성황... 지난 주말 3000여명 다녀가

남원시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계판5분展’이 성황을 이루며 지난 주말과 신정 3일간 3,000여명이 다녀갔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다양한 계와 가재, 새우 등 아름답고 신비로운 갑각류 약 50종 2,000여 마리를 전시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계생태전시’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계와 다양한 갑각류 생물들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매료시키고 있으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프로그램인 갑각류의 생활습성을 이용한 ‘갑각류 생태뉘시’와 아이들의 정서와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해양생물터치풀’, ‘모래놀이’ 등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전 연령대가 입장가능 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30분까지며(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날당일)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 및 안내는 홈페이지(www.namwon.go.kr/tour)나 남원시청 산림과(063-620-5753)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도 단위 전국 1위 쾌거

전북도가 20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97.44%로 전국 도 단위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경제적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기준 70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 7만 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북도에서는 98,410명이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받았으며, 발급예산 68억 8,870만원 대비 63억8,012만1,599원을 사용해 전국 평균 90.74%를 뛰어넘는 92.62%의 높은 이용률을 달성했다.

전북도는 2016년 발급률 3위·이용률 2위, 2017년 발급률 2위·이용률 2위에 이어 2018년 발급률 1위와 이용률 2위의 성과를 기록했

으며, 2016년부터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영화·공연·전시·관람·서점·음반·악기 등)와 관광(여행·숙박·철도·항공·여객·운천), 스포츠(야구·농구·축구·배구)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 유흥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 단위 예산이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들이 공연과 전시, 스포츠 경기 관람 등 꾸준한 문화생활에 참여한 덕에 9개 광역도 중에서 전북도가 발급률 전국 1위와 이용률 전국 2위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카드는 2019년 2월 1일부터 발급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